

## 폭염에 화재진압...소방관 탈진·탈수 고통 줄인 비결

2019-08-06 14:10 최모란 기자



5일 오전 1시49분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쓰레기 야적장. 산처럼 쌓인 폐플라스틱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순식간에 다른 쓰레기들로 번졌고, 놀란 주민들의 신고 전화만 35건이 이어졌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야적장의 면적은 2100㎡. 폐플라스틱 길이만 가로·세로 각각 15·80m에 달했다.

하지만 쓰레기가 가득한 야적장에 난 불을 끄기가 쉽지 않다. 유독가스도 골치다.

여기에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겹치면 소방관들의 고통은 더 커진다. 20kg에 달하는 보호 장비를 걸치고 방화복까지 입다 보면 옷 내부 온도가 50도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교대로 휴식 취했더니 탈진·탈수 줄어

이에 시흥소방서는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덤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140여명이 한 번에 투입됐다.

그리고 '회복분대'도 투입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입한 '혹서기 근무방식'이다.

현장 대원들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얼음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현장 투입·대기·휴식 등 3개 조로 나눠 교대로 진압에 나서는 방식이다. 현장에 투입됐던 직원은 신체 상태를 측정해 에어컨이 켜진 냉방버스에 탑승해 얼음물을 마시고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현장에 투입된다.

대략 20~30분 정도 현장에 투입되는데 이날은 폭염이 심해 15분 정도만 현장에 투입되고 30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불은 16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전에는 폭염 속에서 현장에 투입됐다가 탈진해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대원들도 종종 나왔는데 회복분대를 운영한 이후부터 탈진·탈수 증상을 보이는 소방관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런 회복분대는 지난해에만 46건의 화재현장에 도입됐다.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 대형 화재 현장에도 이 시스템이 도입됐다.

큰불이 난 현장에 주로 도입

그렇다고 모든 현장에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대응 1단계 등 화재가 크고 진압에 장시간이 걸릴 경우 현장 지휘부의 판단에 따라 도입된다.

그래서 5일 파주시 한 전자상가 건물 화재 사고엔 회복분대가 투입되지 않았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외벽의 단열용 스티로폼을 태우긴 했지만, 건물 내부로는 번지지 않아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파주시엔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낮 최고 기온이 34.3도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한 소방관이 어지럼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올해 6월 임용된 신입 대원으로 경험 부족으로 현장에 익숙하지 않고 당시 몸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선 소방관들 사이에선 "모든 화재 현장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문제다.

지난해에만 경기도에서 9632건의 불이 났다. 하루 평균 26.4건의 불이 난 셈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름철만이라도 모든 화재 현장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경기도의 경우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